

## 행복한 금요 편지

# 큰 뜻을 지닌 사람들

이은식<sup>1)</sup>

한국인물사연구원장

개자추(介子推) 같은 忠臣은 이 땅에 없는지 자문해 보곤 한다.  
조선조 인조대의 학자 신흠(申欽)은 문과에 급제하고 병조좌랑에 올랐다.  
그러나 광해군 때에 영창대군을 비호하다가 파직당하고 이곳저곳으로 유랑하다가 인조 반정 후 다시 등용되어 대제학, 영의정에 올랐다.  
그는 모든 학문에 통달하였으며 이정구, 장유, 이식과 더불어 한학 4대가로 뽑혔다. 아들 신익성은 선조의 딸 정숙옹주와 혼인하니 선조임금과는 사돈이 된다. 한편 단가(短歌)에도 능한 바 있어 30수의 작품이 해방 후 비로소 간행된 지본 청구영언(靑丘永言)에 전하는데, 이는 모두 광해군 대에 뜻을 펴지 못하고 춘천 소양강가로 퇴거했을 무렵에 읊은 시조이다. 그 중 한 수를 소개한다면,

한식 비온 밤에 봄빛이 다 퍼졌다.  
무정한 화류도 때를 알아 피었거든  
어떻다 우리의 임은 가고 아니 오는고.

(한식(寒食)날 밤에 비가 오고 나더니 산과 들에는 봄빛이 어리었다.

아무런 뜻이 없는 꽃과 버들도 꽃필 때를 알고서 피었는데  
어찌하여 우리의 임(광해군 임금)은 한번 떠나가시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시는가.)

이 시조에 한식(寒食)이란 단어가 나온다. 한식이란 찬 음식을 뜻하는데, 그 뿌리를 찾아본다. 한식일은 기나긴 겨울 동지가 지난 지 105일째가 되고 청명(淸明)에 앞서기 2일전의 날이다. 한식의 유래(由來)로는 다음과 같은 중국 고사(古史)가 있다.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이은식 철학박사님은 현재 한국인물사연구원장을 직임하고 계십니다.



중국 춘추시대에 5패의 하나로 손꼽히던 진(晉)나라 문왕(文王)은 부왕(父王)의 총애를 받던 여희(驪姬)라는 여인이 있었다. 시기심이 많은 여희는 사사롭게는 서계모가 된다. 하지만 황제와 아들 太子를 이간시켜 살해하였으며 다음은 동생인 文公에게 해가 미치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문공은 목숨을 보존키 위해 충직한 부하 다섯을 데리고 국경을 벗어나 19년이나 유랑 생활을 하였는데, 그 부하 다섯 가운데 개자추(介子推)라는 이가 들어있었다. 어느 때인가 그들은 굶주림을 못 이겨 쓰러지고야 말았다. 그때 개자추는 스스로 허벅살을 베어내어 문공에게 바치니, 그는 이로써 아사를 면하게 되었다. 그 얼마 후 부왕이 하세하매 문공은 돌아가 왕위에 올랐고, 방랑시절에 고난을 같이했던 충직한 신하들은 공을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었다. 그리고 상도 많이 받았다. 다만 개자추만은 아무런 혜택을 입지 못하였다.

개자추의 생각은 다른 신하와는 달랐다. 다만 신하가 태자와 왕을 모시고 충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뿐이지 공을 바라고 충성한 것은 아니라 했다. 모시던 부하들이 모두 충신이라며 왕의 입지를 좁혀갈 무렵, 개자추는 어머니를 모시고 멀리 산서성 현산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를 보고 분개한 개자추의 친지가 다음과 같은 글을 지어 궁문(宮門) 앞에 붙여 놓았다.

“한 마리의 영특한 용이 얼마동안 거처을 잃고 다섯 마리의 배암(뱀)을 이끌고 천하를 해매어 다녔노라. 어느 날 용이 굶주림에 쓰러지니, 그 중 한 마리의 뱀이 자기의 허벅살을 베어 바쳐 죽음을 면케 하였노라. 이윽고 용은 자기의 거처인 깊은 못(궁궐) 속으로 돌아가 그 곳에서 편히 쉬게 되었노라. 그리하여 그를 따라다니던 네 마리의 뱀은 거처할 구멍을 얻었거늘, 용의 굶주림을 면케한 한 마리 배암만은 들어가 거처할 구멍을 못 얻어 산에서 울고 있다”

이 글을 본 문공은 크게 뉘우치고 당장에 사람을 보내어 개자추를 찾게 하였으나,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린 그를 찾을 길은 없었다. 이렇게 되매 문공은 개자추가 들어간 산에다 불을 지르면 나올 줄로 생각하고 산을 불태우게 하였다. 그러나 개자추는 끝내 산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늙은 노모와 함께 타죽고야 말았다. 문공은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긴 나머지 “불이 아니었으면.”하면서 해마다 그날이 오면 백성들에게 명하여 화식(火食:익은 음식)을 금하고 찬 음식을 먹게 하는 한편 현산을 개산(介山)이라 부르게 하였다고 한다.

그럼 요즘, 우리들의 정치마당을 한번 들여다보자. 마치 큰 황소를 잡아놓고 서로 많이 먹으려고 으르렁대는 이리 떼와 흡사하지 않은가! 우리나라에는 언제쯤 개자추와 같은 충신이 태어나려나...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